



【신간 보도자료】

AI 패권 시대, 한반도 중립의 길

-기술 권력과 이념의 벽을 넘는 상생의 인문학-
김반아·조정호 지음

**AI가 지배하는 세상,
우리를 구원할 것은 알고리즘이 아닌 '모성'과 '홍익'이다**

세상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AI 산업혁명은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다. 산업과 직업, 교육과 사회 시스템, 국가 힘의 구조까지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AI 기술을 선도하지 못하면 대기업도 도태될 수 있고, 세계 최강국조차 바뀔 수 있는 것이다.

『AI 패권 시대, 한반도 중립의 길』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반도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한다. AI 산업혁명과 국제 정세의 변화, 남북 관계의 위기, 그리고 사회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분석했다. 핵심은 단순한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남북이 함께 생존할 수 있는 '상생의 조건'이다. 한반도 중립화 가능성을 역사, 정치, 철학적 관점에서 탐색하며, 기존의 통일 담론과 다른 인문학적 대안을 제시한다.

책의 핵심은 '생명모성'과 '홍익'이다. 모성은 단순히 여성성이나 양육의 의미로 한정되지 않는다. 모든 생명과 존재가 지속될 수 있게 하는 근원적 힘이며, 남성 역시 제외되지 않는다. 증오와 두려움, 수치심과 열등감, 분노와 고독 같은 인간 내면의 부정적 감정조차도 품고 녹여내는 힘이다.

이러한 생명모성은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 지능을 이미 넘어선 AI인간(전자적 인간)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이다. 결국 AI 패권 시대에 정작 필요한 것은 강력한 알고리즘이나 가속화된 연산 능력이 아니다. 인간과 기술, 그리고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할 수 있는 윤리적 기반이다.

'인간 생명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과 공존한다'는 사실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생명모성과 홍익인간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홍익은 철학적 언어이고, 모성은 그 정신 작용이다. 홍익인간이 지향하는 공존의 가치는 생명모성이라는 심리적 힘을 통해 현실 속에서 구현될 수 있다. 단군은 남북한의 국조이고, 만물을 살리자는 생명모성은 인간과 AI의 공존 및 남북화합의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며, 홍익인간과 지향이 같다. 홍익인간은 남북한이 상호 존중하며 이념대립을 완화시킬 수 있는 사상이다.

기술이 인간을 앞서가는 시대일수록 인간은 인간을 지켜낼 수 있는 철학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는 패권 경쟁의 승패가 아닌 상생의 조건을 세우는 데서 시작된다.

■ 저자소개

김반아 Vana Kim Hansen, Ed.D.

하버드대학교 교육철학박사

북한에서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애국적 기업가'로 인정받아 경제인으로는 유일하게 '애국렬사릉'에 안장된 이종만 선생의 외손녀, INNK(International Network for a Neutral Korea) 전前 대표, 한겨레:온 객원편집위원, 『한반도는 지금 영세중립화가 가능한가?』(2021), 『공동의 선을 통한 진정한 통일』(2024), 『AI의 그림자, '대부' 힌트와 키신저의 경고』(2025) 외

조정호 JongHo Joh, Ph.D.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철학박사

국립 한국체육대학교 교양교직과정부 교수, 한국인격교육학회 제7대 회장 및 상임 고문, 한국교육인류학회 제7대 제8대 회장 및 고문, 전국 국립 및 공립 대학교 교수회연합회(국교련) 제26대 공동회장, 『남북한의 단군 인식과 그 함의』(2023), 『이념대립 개선을 위한 시민의식 교육과제』(2023), 『AI시대 인문학의 검토과제』(2025) 외